일주문

불광장학회 2회 장학금 전달

서울 불광사 불광장학회 이사장 지홍 스님은 8월 23일 탈북 새터민 자녀를 비롯해 불자 대학원생 2명 등 총 24명의 학생에게 2학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제징용 희생자 위령재

양산 천불사 회주 도봉 스님은 8월 26일 열린 '태평양전쟁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및 합동위령재'를 봉행했다.

법주사 비천상 벽화 전시회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12월 4일까지 경내 진영각에서 비천상 벽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 신임회장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8월 19일 부산 홍법사에서 열린 2009년 불교문화대학원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위안부 피해자 주제 공모전'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9월 30일까지 '제1차 전국 청소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정승가대중결사 2차 워크샵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진오 스님은 9월 14~15일 공주 전통문화문화원에서 제2회 대중결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02)732-1209

자비명상 공개강좌

천안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은 9월 9일 오후 1시 서울 템플스테이 정보센터에서 자비명상 지도자과정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041)622-1190

동산불교대학 불교대학 졸업식

동산불교대학 안동일 이사장은 8월 23일 무진장 대종사 스님을 계사로 불교대학 31회 대학원 22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동우장학회 2009 동우장학금 전달

동국대 총동창회 산하 동우장학회 전순표 회장(세스코 회장)은 8월 2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2009 동우장학금을 각 100만원씩 40명에게 전달했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연주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9월 2일 세종체임버홀에서 '음악, 법의학자를 만나다-슈베르트 편'을 개최한다. (02)718-4599

"약자위한 삶으로 다시 회향"

1000일기도 회향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불자들과 약속한 천일기도 동안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약자를 위한 삶으로 회향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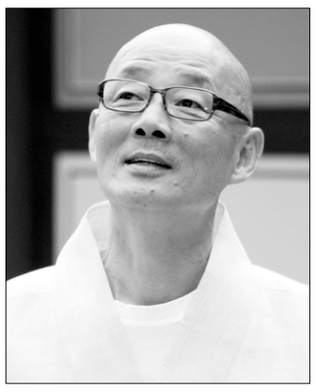
2006년 12월 5일 1000일기도에 들어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사진)이 기도 회향을 5일 앞둔 8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명진 스님은 매일 1000배씩 1000일 기도를 빠짐없이 해왔다. 산문출입 조차 하지 않은 스님의 뜻이 꺾인 적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봉은사 신도였던 권양숙 여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국민장 영결식 의식집전을 한 것이 유일하다.

스님은 "김 前 대통령처럼 노 전 대통령이 노환으로 돌아가셨다면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살이 있게까지 한 원인, 이것이 남긴 역사에 동참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어 스님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자정 넘게 TV 토론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에 못 일어날까 걱정한 날은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더라. 불자들과의 약속이라는 긴장감이 1000일간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과 조계종 개혁에 앞장서며 일명 '운동권 스님'으로 불렸다. 1987년 6월 20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열린 6월 항쟁 집회 당시 백골단에 끌려가는 명진 스님의 사진은 주지실 한 켠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다. 사회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던 스님이 보수 색채가 강한 강남, 그 중 조계종 사찰 중 최대 예산을 운영하는 봉은사 주지가 됐을 때 큰 화제를 모았다. 스님은 이러한 관심을 수행중심의 사찰 구현, 투명한 사찰 운영을 기치로 승화시켰다.

재정 · 예산 공개 및 신도회와 함께 하는 종무결정, 빠짐없이 직접 진행한 일요법회 등은 냉담자가 많아 참여율이 저조했던 20만 봉은사 신도들의 신뢰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 천일기도와 더불어 명진 스님은 사중 스님, 재가신도들과 매일 아침 바루공양을 하고 예불과 운력을 함께하는 수행생활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초기 200여명에 불과했던 봉은사 일요법회 참가자는 매주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스님은 "'쇼'한다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출가자로 가장 기본적인 신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님들이 서로 다투는 '쇼'보다 신도들에게 신뢰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쇼'를 더 했으면 좋겠다."

1000일 기도기간 중 세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부터 용산참사, 전직 대통령의 연이은 서거 등 격변에 대해 스님은 "안에 있으면서 더 투사가 된 것 같다. 몇 번이고 나가고 싶을 때 견디게 한 자기 성찰이 사판승으로서도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수행과 동시에 사회참여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일까. 명진 스님은 8월 30일 회향법회 후 당일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1999년 스님이 첫 방부를 들인 인제 용화선원에 9월 3일부터 산철결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향법회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강석천 조선일보 주필이 나란히 축사해 눈길을 끈다. 또 기도동안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모은 쌀 1000가마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강남구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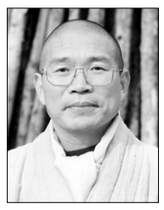
끝으로 스님은 "11 · 12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후 13대에 총무원장 스님의 간선추천을 고사했고, 이후 종단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찰 재정 투명화 등 봉은사를 잘 이끄는 것도 종단 개혁과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밝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6 · 17교구본사 주지 후보

원혜 스님 마곡사 당선, 원행 스님 금산사 추대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에 원혜 스님(사진 왼쪽)이,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에 원행 스님(사진 오른쪽)이 각각 선출됐다.

공주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영진)는 "8월 24일 산중총회를 열어 본사주지 선거 결과 135표 중 74표를 얻은 원혜 스님(前 봉은사 주지)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새 주지 원혜 스님은 1973년 공주 마곡사에서 일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주통일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스님은 부여 고란사와 강경 용암사, 서울 봉은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원혜 스님은 "스님들이 편안하게 사는 본사,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 금산사 제14대 주지에는 원행 스님이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 금산사는 "8월 22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원행 스님이 제13대에 이어 제14대 주지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3년 혜정 스님을 계사로 법주사에서 사미계를, 19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지구촌공생회 이사, 전북사암승가회 회장, 전북도경승지단장 등을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웃불교국가 지도자 잇따라 조계종 방문

24일 칼미크 공화국 마리나 무카 베노바 의원 지관 스님 예방

칼미크 공화국의 마리나 무카 베노바 국회의원과 몽골의 아자 린포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잇달아 예방했다.

러시아 연방인 칼미크 공화국 마리나 무카 베노바 국회의원은 8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칼미크 불교계와 조계종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 마리나 의원은 한국 불교계의 지원을 요청했다.

몽골계로 러시아 연방 21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칼미크 공화국은 '초원의 진주'라 불리며 인구는 33만명 중 60%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나 의원은 지관 스님에게 "올해로 칼미크 공화국이 러시아에 편입한지 400주년을 맞았다"며 "한국불교와 칼미크 공화국의 불교가 더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불교지도자들이 칼미크를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칼미크 공화국 마리나 무카 베노바 의원.

같은 날 몽골 출신 티벳불교 스승인 아자 린포체도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아자 린포체는 지관 스님에게 "한국불교계가 동대문 몽골법당에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 미국에서도 한국불교의 위상과 정신이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B뽑은 것, 깨달음 위한 시련"

기로에 선 대한민국 비전 제시, 추미애 국회의원

추미애 국회의원.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Social well-being'을 이루는 것이다."

추미애 국회의원(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8월 25일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교미래사회포럼에서 '국회에서 바라보는 비정규직문제'를 주제로 위기와 희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에 비전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 즉 우리가 개척해야할 30년의 과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생공영'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과학이 발달하고 인재교육이 잘 이루어질수록 일자리가 줄고 노동직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기술자가 하나의 발명을 이뤘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공이 아니다. 과학자들의 선행연구와 주변의 도움이 있었다.

모두의 힘이 더해진 획기적인 발명으로 창출되는 가치는 나눠야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 뽑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들으면 부처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려고 큰 실수를 하게 도와준 것 같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는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끝으로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월 740만원, 하위10%는 80만원이다.

이것은 8.68배의 차이로 작년 8.3배보다 높은 수치다"며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4대강 운하사업 등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불자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주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 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 수련기간 : 2박 3일 ■ 수련인원 : 1~3명 ■ 수련비 : 150만원 ■ 개강일 : ① 2009년 9월 7일(월) 오후 1시 / ② 9월 10일(목) 오후 1시

스님이 직접 강의 하고 스님들만 교육 받는 유일한 곳

많은 스님들께서 최면 교육에 비싼 비용과 무리한 시간을 내어 최면을 수련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스님된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딱! 일년만 저렴한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스님들이 최면을 완벽하게 시술 할 수 있도록 최면 강좌를 열겠다고 그것이 소승의 의무라고 생각 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벌써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150여분의 스님들이 미흡한 제 강좌를 들으시고 최면을 시술 하시어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소식에는 스님들께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정락 스님이 강의를 너무 쉽고 편하게 가르쳐준 덕분이라는 그말엔 송구 스러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소승은 오히려 150여 스님들께 감사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말을 제 가슴에 새길뿐입니다. 이제 약속의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특별 개인 지도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세미나와 수련회에만 열중하여 유마 최면 연구소 정회원님들께 고난이도 테크닉 전수와 각 회원님들이 삼생의 시공을 넘나드는 자기 최면 완성을 돕는데 진력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대상 최면 교육의 명가

≫ 많이 하는 질문

질문 1) 정말 2박 3일에 최면을 시술할 수 있나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답)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소승에게 그동안 150여 스님들이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매주 시간을 낼 수 없고, 신분 노출을 꺼리시는 30여 스님들께서 개인적으로 2박 3일 수련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있게 최면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완벽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이 저의 교육 노하우라 할까요? 비법이라 할까요? 같은말 인가요? 하~하~하

질문 2) 2박 3일 교육이 끝나면 끝입니까? 제가 둔해서 한번 교육에 최면 시술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 걱정 하지 마십시오.
2박 3일 교육을 받으시면 시술을 하지 못할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 한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승에게서 공부하신 스님이 현실에서 최면을 활용하지 못하신다면 제 성질이 그런것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승이 책임져 드립니다.

일대일쇠 개인 지도

질문 3) 이론 공부가 부족하지 않은가요?
답) 네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최면 강좌를 시작하기 전 많이 고심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학문과 기능? 학문과 기능이라? 그리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기능을 우선으로 하자입니다. 한문의 심오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자면 수년의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스님들께서 불사와 포교를 하시는데 몇 년의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 했고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깊은 학문이 필요 없듯이 최면 시술을 하는데도 깊은 학문적 이해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기능면에 치중 하였습니다. 학문적 욕구가 절실한 스님들이 계시면 서점에 가면 최면에 관한 서적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최면 이라는 검색어만 쳐도 최면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도 많은 자료가 있어 기능이 완벽하면 학문에 대한 갈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소승은 최면의 가장 기본적인 이로과 더불어 와벽한 최면 테크닉에 중점을 두고 강좌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및 수련회 안내

- 일시 : 2009년 9월 24일 (목요일) 오후 1시 - 9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소 : 유마최면연구소 수련원 (백련사)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 주제 : 1. 최면 시술상 고난이도 테크닉
  2. 시공(時空) 왕래 자기 최면의 완성
  3. 묻고 답하기
  ※ 자격 : 유마 최면 연구소 정회원 준비 관계로 9월 15일 까지 참가 신청한 회원님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 유마 홈페이지 / 참여 마당 / 자유 게시판에 기수와 법명을 올려 주십시오.
  Ⓑ 핸드폰 문자 ☞ 010-5100-6612로 기수와 법명을 올려 주세요.
  Ⓒ 인터넷이나 핸드폰 둘 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비 : 8만원
  - 기타 : 모두 참석 하시어 최면 시술중 궁금중과 답답함을 해소 하시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마 최면 연구소 연락 전화 032)349-0666 수련원 : 경기, 안성시 금강면 한운리 산 171번지 홈페이지 http:www.yuma119.com